

## 뉴델리 ICID 60차 집행위원회와 2014년 22차 총회 한국 유치

김 태 철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dawast@cnu.ac.kr)

### I. 머리말

ICID 제60차 집행위원회(IEC)와 제5차 아시아지역회의(ARC)가 2009년 12월 6일~11일 인도 뉴델리 Vigyan Bhawan 컨벤션에서 개최되었다. 제5차 ARC 주제는 “기술향상과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한 관개효율개선” 이었다. KCID 에서는 필자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김일환 과장, 강원대 최중대 교수, 한국농어촌공사 박광수 처장, 김진택 차장, 주식훈 차장, 박기욱 연구원, 업계대표로 최귀열, 박상현, 강재호, 최규훈 등 11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참가 목적은 2014년 ICID 제22차 총회의 한국유치 신청과 아시아 지역회의 참가 및 논문발표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60차 IEC 에서의 활동과 2014년 제22차 총회와 65차 IEC 한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보고 느낀 인도 사회 풍물을 보고하고자 한다.

### II. 인도의 역사와 농업

개인적으로 1983년 8월 인도 북부 Roorkee 대학 수문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26년만에 “저기 어딘가에서 인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꽃과 태양과 비의 나라, 사막과 해변과 만년

설의 나라, 영원한 지혜를 축복하는 신들의 나라, 어느 순간 평범한 일상에서 탈출해 그곳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나라” 인도를 여행한다.

인도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드라비다족이 기원전 3,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에 발전하였던 문명으로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이다. 아리안족이 침입하여 원주민을 정복 동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카스트라는 특유한 사회 제도가 생겨났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으로 브라만은 힌두교 제사를, 크샤트리아는 무사계급으로서 왕족이, 바이샤는 농업·상업·수공업에 종사하는 서민계층, 수드라는 상위 카스트의 노비로 종사하였다. 헌법상 카스트는 폐지되어 도시에서는 점차 사라져 불가촉천민이 국회의장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에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당한 이래, 7세기에는 이슬람 세력이 급속한 성장으로 이슬람교가 인도에 전파되었고, 1192년 마침내 힌두 연합군이 패배하여 무슬림이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1526년 무굴제국이 세워져 300년간 번성하였다. 1857년 무굴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영국 식민정 치에 대항하여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했으며 1947년 8월15일 인도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2008년 면적은 3,287,590km<sup>2</sup>로 한국의 33배, 인구는 11.5억명으로 24배에 이른다.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변동하는 우기시기와 강수량에 의해 농업생산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몬순의 도박이라 하기도 한다. 쌀이 주식이며 우기에 수확하는 바리히와 건기에 수확하는 쌀리 등 많은 벼 품종이 재배되어 벼 재배의 기원지로 추정되어 왔다. 독립 이후 다모다르 하곡개발계획(DVC)과 같은 대규모 관개개발과,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물물을 이용한 관개보급으로 관개면적은 1950년대 보다 2배 늘어나 작부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관개시설은 용수로와 우물이 각각 40%, 나머지는 저수지이다. 경지면적은 세계3위에 이르나 생산성이 낮고 농가의 약 70%가 경지면적 2ha 미만의 영세농이다. 현재는 식량자급이 달성되었으며, 쌀과 밀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 60%가 농업에 종사하여 GDP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매력 면에서 세계 다섯 번째 경제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소프트웨어를 수출한다.

### Ⅲ. ICID 제60차 집행위원회(IEC) 및 제5차 아시아지역회의(ARC)

ICID는 1950년 관개, 배수, 홍수조절에 관한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인도 뉴델리에 본부 사무실을 둔 비정부 과학기술단체이며, 현재 107개국이 회원국이다. 총회(Congress)는 매 3년마다 회장선출과 세계적 규모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이때 통상 지역회의도 겸하게 된다. 지역회의(유럽,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등)는 2년에 한번 정도, 주제별 TF팀, 워크샵, 세미나 등은 그 때 그 때 매년 개최된다.

#### 1. 제60차 IEC 주요 결정 사항

제60차 뉴델리 IEC 컨퍼런스에는 각국 대표단과 수자원 전문가, 연구원, 정부 관계자, 물 관리자, 기부자, 개발업자 등 800여명이 참가하여 32개 각종 위원회와 6개 특별 세션이 벌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Cameroon과 Fiji가 신입 회원국으로 접수되었다.
- ㉡ 매년 3명씩 선출되는 임기 3년의 부회장에 호주 Vlotman 박사, 헝가리 Hayde 박사, 인도 Bajaj 회장이 새로 선출되었다. KCID에서는 지금까지 유근학, 권순국, 허유만 등 3명의 부회장을 배출하였다.
- ㉢ ICID WatSave 기술상은 Ahmad 박사, 혁신 물관리상은 Somawanshi이 수상하였다. KCID에서는 필자가 2001년 ICID WatSave 기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젊은 기술인 상은 호주 Malcolm Gillies 박사가 수상하였다.
- ㉣ 2014년까지 예정된 총회, 집행위원회 및 워크샵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0월 제61차 IEC 및 제6차 ARC: Yogyakarta 인도네시아, 그리고 WG-CROP “Water Saving and Conservation” 워크샵: 2010년 12월 제24차 유럽지역회의 Orleans (프랑스) 2011년 10월 제21차 총회 및 제62차 IEC: Tehran (이란) 그리고 WG-PQW “Water Quality and Irrigation” 워크샵: 2011년 5월 제25차 유럽지역회의 Groningen (네델란드) 2012년 제63차 IEC 및 제7차 ARC: Adelaide (호주) 2013년 제64차 IEC는 현재 태국과 터키 신청예상, 2010년 IEC에서 결정 예정, 2014년 제65차 IEC와 제22차 ICID 총회 Seoul, 한국 등이다.

## 2. 아시아 지역위원회에서의 활동

아시아 지역위원회(ASRWG)는 실제적으로 아시아 각국 대표가 위원이며, 아시아지역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이다. 필자는 Vice-chairman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③ Item 3.1: ICID 본부가 신규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비회원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북한에게도 초청장을 보내고 교섭할 것을 본부에 건의하고, 이 지역 담당 오타 부회장에게도 노력을 환기시켰다. 북한은 수리시설이 취약하고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회원 가입이 국제사회의 식량 흐름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남한과 국제기관에서 북한에 매년 상당량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어서 KCID도 북한이 ICID 회원국이 되는 것에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했다. 1999년 FAO 전문가 Klaus Siegert 씨가 북한 방문 시 수리담당자를 접촉했다는 회의록이 있고, 2005년 중국 총회에 2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진남포 방조제 배수갑문 운영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대표단에게 ICID 활용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었다.
- ④ Item 8: ICID 본부 요청에 따라 2007년 10월 이후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원들의 활동 무대인 PAWEES와 INWEPF의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 ⑤ Item 9: Asian Regional Task Force on Climate Change (ARTF-CC)에서 우리나라 관개 저수지와 다목적댐의 PMP, PMF 설계 기준과 건설현황을 중심으로 "Design

criteria for dam crest, spillway, and drainage facilities strengthened to cope with abnormal weather disaster in Korea" 를 발표했다. 이 설계 기준은 원래 2002년 태풍 루사 때 성주 댐과 오봉저수지에서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재해방지 차원에서 제정되어 건설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다목적댐과 같이 넓은 유역면적에 PMP 설계 강우 적용이 합리적인지, PMF로 설계한 비상 물넘이를 건설하는 것은 홍수에 대해 안전하지만 너무 안전하고, 엄청난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여, PMF 발생 시 물넘이 붕괴 이전에 이미 상·하류 하천제방과 배수시설은 붕괴되고, 도심지는 침수상태에 빠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마쓰모토 박사와 이란 Shiasi 위원장도 기후변화가 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 ⑥ Item 12: 한국이 2014년 제22차 총회와 제65회 집행위원회를 유치하고자 신청했음을 알리고 아시아 지역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했다.

## 3. 5차 ARC 주요사항

5차 ARC 개최식은 Singh 수상과 수자원 장관, 과학통신부 장관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기술향상과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한 관개효율개선"이라는 주제로 20개 기술 세션에서 24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폐회식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

등 7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텔리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선언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텔리 선언문: 인구성장·산업화·도시화를 의식하며; 다목적 특히 농업을 위해 귀한 수자원 수요증가를 예견하며; 물 분야의 엄청난 도전과 융합을 인식하며; 기후변화가 농업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각종 위원회와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사회·경제·생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용한 물과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을 부흥시킬 전략과 대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식량공급은 주로 관개농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건조·반 건조지역에서는, 관개배수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관개면적의 70%가 아시아에 있으며, 이는 인구분포와 같다. 아시아 국가의 농업 물 관리는 식량수요에 대응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가난 경감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정부는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공익사업으로 관개배수의 개선과 현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관개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도전을 인식하면 관개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공부문과 사기업부문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 사기업 부문도 물과 식량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협의해야 한다. 여성은 식량생산에 큰 역할을 한다. 참여형 관개용수관리(PIM)는 관개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기관은 PIM을 지원해야하고, 재정과 기술자원을 동원하여 개혁을 독려해야 한다. 물 관리조직(WUA)을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 작물생산량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실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정부와 관련기관은 적응·경감 대책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계획·실행 단계부터 농경지 조성으로 나타나는 침수와 염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조건에 적합한 종합 농업배수개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관개를 위한 수자원개발과 관리에서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역 당사자의 개입과 함께 공공-사기업 간의 협력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 4. 회의장 주변 단상

일정 내내 인도식 스탠딩뷔페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여 참가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000의 밤”이라고 개최 예정국이 회의에 많이 참가해달라고 개최하는 리셉션도 잘 해야지, 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열린 카테일 파티에 선선한 날씨인데 찬 음료수에 먹을 것도 부실하고 호텔로 돌아 갈 차량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아 참가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ICID도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년 외국인 참가자가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젊은 전문가의 참여가 쉽지 않다. 그 이유로 비싼 등록비와 여행경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각종 회의 가운데 기후변화위원회(WG-Climate)와 참여형 관개용수관리(PIM)에 가장 많은 참가자가 관심을 가지고 모여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밤거리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춤을 추고 노래하며 축포와 불꽃놀이까지 곁들인 긴 행진이 자주 벌어지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텔리 도로에는 교통신호도 차선도 거의 없으며 대기는 각종 배출 매연으로 스모그가 자주 형성되고 때로는 목이 매캐하고 기침이 날 정도이다.

#### IV. 2014년 ICID 제22차 총회 및 제 65차 IEC 유치 성공

당초 2014년 총회 개최국은 2010년 인도네시아 IEC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다. 통상 총회 개최국은 IEC에서 4년전에 신청국간에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2001년 IEC 개최국을 결정할 때 1996년 카이로 총회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에 비밀투표로 한국개최가 결정되었었다. 그런데 2014년 총회를 한국에 유치를 위한 공식 신청서를 본부에 제출하려 갔더니 이번 2009년 인도 IEC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무총장 Gopal박사가 IEC Agenda Item-3에 이미 상정되어 한국과 터키가 경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유치 준비단이 유치단이 되었다. 고래를 잡으려고 밀밥만 뿌려 놓고 1년 후에 잡을 계획이 당장 고래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사전 준비가 미비하고 4일 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의사 표명할 유치연설문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KCID에서 자료를 전송받아 밤새워 이를 만에 팜프렛을 만들어 배포하고, 그 동안의 인맥을 통하여 각국 대표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전념했다. 급한 마음에 집 사람도 휴대전화를 하는 마드라무투 회장에게 준비해간 작은 선물을 주면서 눈치를 보았다. 격려의 말을 해준 일본 Sato와 Ota 회장 대만의 Chen과 Chuang 회장, 말레이시아 Amin교수, 이집트 Zeanab 교수, 핀란드 Jaakko, 태국 Boonkid, 말리 Sangare박사, 이란 Shiati위원장, 중국 Gao와 Wang회장 등 모두 고마울 따름이다. 터키 대표 Hasan은 경쟁 상대였지만 형제, 친구로서의 우정을 잃지 않고 서로 도울 것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경쟁을 했다.

12월8일 ICID 본부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칵테일파티에서



ICID 본부 칵테일파티에서의 유치연설

자유로운 형식으로 유치연설을 했다. 2012년 IEC 신청국인 호주가 유치연설을 했고 2014년 총회 유치 경쟁국인 터키와 한국대표가 유치연설을 했다.

12월10일 IEC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에게 공식적인 유치 배경을 설명했다. 터키는 이스탄불에서 WWF-5를 개최한 것을, 우리는 기후변화와 수리시설 대응, 개도국 농촌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 주제지향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참고가 될 것 같아 영문연설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Thank you, President.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Tai-cheol Kim, the delegate from Korean National Committee (KNC) of ICID. It is my great pleasure to announce you that KNC has submitted formal application to host 65th IEC and 22nd Congress in 2014 in Seoul.

On behalf of KNC, I myself have expressed the strong intention to host the 22nd Congress at the IEC meeting in Sacramento in 2007. At that time, many of

you have shown sincere confidence and encouraged us with big applauds. The draft plan to host the Congress has been approved later by the Council of KNC in 2008. KNC has joined ICID in 1969 and has 10 Working Groups, 1,510 individual members and 88 company members. KNC is one of the best Scientific NGO in Korea and has won award for the “Best Performing National Committee in ICID” in 2002.

As you memorized, we had unforgettable experience to host 52nd IEC and 1st Asian Regional Conference in 2001 Seoul. We had done our best to share the friendships and show the hospitalities to ICID colleagues and all of us were so happy. Now 10 years have passed and many things have changed, we eagerly desire to host the Congress to discuss the impending global questions. Tentative theme of Congress is Question 1 Water Management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and Question 2 Int’l corpora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in 21st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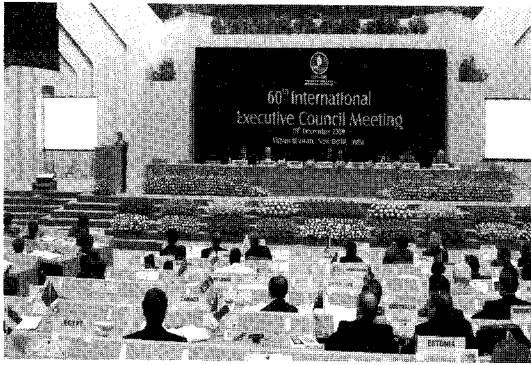
Korea was the poorest country and three decades later achieved the economic miracle. Now, Republic of Korea is one and only country positioned between the developing and the developed after World War Second. It was the turning point to solve the food security by developing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through the new village movement. After then, we could concentrate our efforts to advanced IT industries as you have seen Hyun-dai

Sonata, Samsung Anycall, and LG electronics. So Korea has experiences how to escape from the poverty and to cross the bridge and reach the advanced country not only by food security but also high-tech industries. Korea had received 66billion U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until 1995 and now becomes a member of DCA in OECD to donate 6billion US\$ of ODA since 2000 and likes to share the know-how of rural development based on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Rabindranath Tagore, Nobel Prize winner Indian poet, had called Korea as the land of morning calm. After we realized the fact that 7million people gathered on the street at the same time to cheer up the Korean soccer team in the semi-final game and scattered peacefully without any accident after match in 2002 World cup, then we call ourselves the dynamic Korea instead of the country of morning calm.

Now, are you ready to touch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dynamic Korea? How about feeling the soul of Asia in Seoul? Why don’ t you experience inspirational passions? Besides congress itself, we will arrange the tours to visit Bazaar shopping, Folk village, Car & IT factory, and De-militarized zone. We follow ICID rules to contribute the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hank you.”

투표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란 대표가 ICID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에



IEC에서 2014년 총회 한국유치 장면

있는 총회 수입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ICID에 지원하는 국가를 개최지로 결정하자는 규정을 적용하려면 1년 연기하여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결정하자고 발언했다. 당연히 우리에게 불리한 의사진행발언이었지만, 다행히 마드라무투 ICID회장이 연기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행 결정을 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표가 한국이 2001년 IE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최우수 국가위원회 상을 받은 한국을 지지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열정적으로 전폭지지발언을 즉석에서 펼친 빅토르!! 1989년 ICID 도쿄지역회의 이후 필자와의 20년 우즈베크 친구의 우정의 발언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극적 반전 드라마였다.

12월10일 11시 거수투표로 진행된 결과 마침내 2014년 ICID 총회를 유치 신청을 뛰어 넘어 예정에 없던 터키와의 치열한 경합을 거쳐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예상도 못한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유럽, 이슬람권 지지를 배경으로 하는 터키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치단원들의 밤을 새운 자료준비와 발표연습과 2001년 아시아 지역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미지 때문이라고 믿는다.

## V. 아그라와 타지마할, Narmada 댐

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후 12일 아그라, 타지마할을 관광하고 귀국하였다. 대법원소송까지 가서 인도는 물론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Narmada 댐 계획을 소개한다.

### 1. 아그라 성

델리 남동쪽 200km에 있는 붉은 사암의 광대한 성벽으로 유명한 아그라 성까지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아 버스로 6시간 걸렸지만 바깥 풍경이 진기하고 30년 전 우리 모습도 보여 그리 지루하지 않았다. 대로변에 한 줄로 서서 노상 방뇨, 길거리 이발소, 차량·자전거·마차·인력 리샤·오토 리샤·소와 돼지가 같이 걸어 다니는 도로, 차창 밖으로 구경하는 소녀, 정치한 물차에서 물을 빼 먹는 소년의 모습. 200km 내내 어디에서나 삼성, LG, 현대 선전 간판을 많이 볼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 현대차는 인도 내 차량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그라는 동쪽으로 갠지스 강 유역의 광대한 평야가 전개되고, 북쪽은 야무나 강 연안을 따라 델리를 거쳐 편자브 지방의 평야에 연속되어 있다.

### 2. 타지마할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은 Agra 남쪽, Yamuna 강가의 궁전형식 묘지로 무굴제국 황제 Shah Jahan(1592~1666)이 왕비 Mumtax Mahal을 추모하여 건축한 것으로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타지마할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붉은 사암의 아치형 정문 뒤로 순백의 대리석 타지마할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 빛깔을 달리하고, 웅장한 건물은 공중에 떠있는

듯 신비롭고, 연꽃 모양 수조와 정원의 완벽한 좌우대칭은 균형미와 정갈함을 준다. Shah Jahan은 타지마할 완공 10년 뒤 1658년 아들 Aurangzeb 반란으로 왕위를 박탈당하고 Agra Fort의 탑에 갇혀 2km 떨어진 타지마할을 바라보다 1666년 사랑하던 부인 옆에 묻혔다.

### 3. Narmada dam project

수자원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가치충돌이 대법원 판결까지 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Narmada dam project 코스를 현장견학 신청을 했지만 일정상 참여를 하지 못했다. 중부 고원에서 발원하여 서쪽 아라비아 해로 흐르는 Narmada 강은 1,200km로 다섯 번째로 큰 강이다. 1979년 착공되어 2025년 완공예정인 Narmada 강 개발계획에는 30개 다목적댐과 135개 중형댐, 3000개 소형댐이 계획되어있다. 이 가운데 Sardar Sarovar Dam 다목적 댐은 높이 136.5m로 가장 규모가 크고 3천만명에게 생활용수 공급, 상습 가뭄지역 180만ha에 관개용수를 공급하여 2천만명에게 식량과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Medha Patkar가 이끄는 Narmada살리기 운동은 댐 효과가 과장되었고, 완공 시 40,000ha 수몰지역에 25만명이 주민이 발생하고 하천유량의 35%만이 아라비아 해로 유출되어 생태변화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댐 건설 중단을 대법원에 제소하여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결국 2000년 대법원은 댐을 5m씩 높일 때마다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댐 높이를 138m까지 건설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2006년 3월 현재 121.92m까지 승인된 상태이다. 다소 정체상태에 있지만 많은 인도인들은 이 사업이 생활용수, 발전, 관개용수 공급과 함께 이미 20억 루피가 이미 투자되었기 때문에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 VI. 맺는말

“결코 다가가기 쉽지 않은 나라. 1루피를 구걸하는 소리도 영적인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나라다. 더럽고, 익살맞고, 고귀하고, 기발하고, 황당하다. 어디 인도뿐인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을. 인간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것들이 뒤범벅되어 마술처럼 펼쳐지는 나라” 인도를 떠나오자 바로 그렇다.

107개 회원국에서 많게는 1,000여명 외국인이 참석하는 ICID 총회를 유치한 것 자체가 KCID로서는 영광이고 보람이지만 우리나라와 농업, 수자원과 수리시설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KCID 조직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010년 3월 정기총회에서 준비 위원회를 발족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Question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특별세션 주제 선정 및 관련 전문가 인맥 형성, 총회 재정 확충 방안, 참여회원 어학훈련, 외국인 참가 확대를 위한 한국의 밤 개최, 현장 및 동반자 투어 등 관련 업무를 면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